

전 가 동 향

KOREA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한전, 내달부터 전자입찰 실시

한전이 공사업체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소액 수의대상 공사를 경쟁입찰 방식의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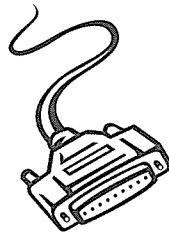
한전은 최근 내달 1일부터 공고되는 일반공사 1억원, 전문공사 7천만원, 전기·통신·소방공사 5천만원 이하의 공사를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경쟁입찰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 공사계약팀 관계자는 "입찰과정 개혁 차원에서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실시하던 공사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사업체의 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번에 공사 공고부터 개찰, 낙찰자 선정 등 전과정을 전자입찰방식으로 실시해 입찰에 따른 잡음을 원천 봉쇄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한전은 적격심사는 생략하고 경쟁입찰의 낙찰하한율인 87.745% 이상의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할 계획이다.

한전은 입찰에 참가하는 공사업체의 편의를 위해 참가신청과 동시에 투찰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개찰 후 1순위부터 참가자격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공사가 발주되는 사업소 관내에 영업장을 갖고 있는 공사업체는 해당 공사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전은 그러나 적절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참가자격을 인접지역이나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전, 송변전설비에 1천471억 추가 투자 -내년 사업 을 하반기로 앞당겨 발주

한전이 올 하반기 송변배전 분야 설비투자에 1천471억원 가량을 추가 투자키로 했다.

한전은 당초 예정된 1조5천억원 가량의 하반기 설비투자 예산 외에 1천471억원을 추가로 편성키로 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설비투자부문의 추가 예산편성은 오랜 기간 불황을 겪어 온 업계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라며 “별도의 사업계획을 마련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니며, 내년 사업을 올 하반기로 앞당겨 발주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예산은 송변전 분야가 498억원, 배전분야가 973억원 규모다.

특히 배전부문은 배전자동화, 선로 지중화사업, 설비보강, 계통 보강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골고루 배정될 것이라고 한전은 밝혔다.

한편 한전이 이번에 설비투자 부문 예산을 추가 편성함에 따라 지속된 경기불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기자재 제조업체와 전기공사업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16일 정부에 의하면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상반기 중 목표치의 99.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중 재정 집행 실적은 당초 정부가 목표로 정한 83조7천억원 중 83조3천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전과 도로공사 등 공기업의 상반기 집행실적은 9조1천억원으로 목표치보다 1천억원 가량을 조기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즈마기술 국제협력 개발 추진 - 전기研, 러시아 고전류研과 기술협력협정체결

한국전기연구원은 러시아의 고전류연구소(IHCE)와 플라즈마 관련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키로 하는 기술협력협정을 체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로써 전기연구원은 금년 들어 일본 러시아 중국 루마니아 폴란드 등 해외 8개 전기관련 연구기관과 기술정보 및 인력 교류와 국제공동연구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기술협력협정을 잇달아 체결함으로써, 전기연구원의 국제적인 위상을 크게 제고하고 있다.

전기연구원은 지난 2월 중국 서안전력전자기술연구소(PERI)와 전력용 반도체를 공동으로 개발키로 하는 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4월에는 중국 영제전기창과 7.2kV/2.5kA급 전력변환용 고전압 사이리스터 설계 기술 을 이전해주는 국제연구수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6월에는 러시아의 보스토켄에너지회사(VostoKergo), 폴란드의 옷뜨기술대학, 루마니아의 마이크로기술연구소(IMT) 및 첨단전기공학연구소(ICPE-CA) 등과 기술협정을 체결했다.

아울러, 7월1일에는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아태에너지연구소(APERC)와 동북아시아의 전력계통 연계사업에 대한 공동연구수행을 한데 이어 이번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전기연구원이 이처럼 해외의 전기관련 연구기관과 기술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전기연구원의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기연구원 측은 밝혔다.

한전 배전처 - 배전설비 피해복구 매뉴얼 제정

한전 배전처는 대규모 재해, 재난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동 대응에 참고하도록 배전설비 피해복구 전 과정의 조치사항을 절차화 한 '대규모 재해,재난 대비 배전설비 피해복구 표준절차서'를 제정해, 재해가 집중되는 금번 여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매년 2~3개의 태풍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7~8월에는 장마로 인한 홍수와 침수 피해가 해마다 발생하는 실정이며, 특히 지난해는 태풍 '루사'와 '라마순', 8월 집중호우 등 대형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상초유의 정전과 배전설비 피해를 입었다.

배전처는 대형재해에 의한 설비피해와 정전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유형별, 복구단계별로 효율적으로 복구작업에 참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혹은 복구전개활동계획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착안해 배전운영팀에서는 "재해, 재난대비 배전설비 피해복구 표준절차서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표준절차서는 재해,재난발생시 대응절차를 재해예보단계, 응급복구 단계, 본복구 단계, 후속조치 단계까지 총 8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별로 본사와 사업소 재해상황실의 상황반별 조치사항과 착안할 사항에 대해 상세한 실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재해상황관리에 필요한 각종 보고서식과 관련문서, 대외홍보 및 안내문안 예시 등을 표준화해 운영토록 했으며, 대만전력과 필리핀 전력사의 재해관련 지침과 규정을 참고자료로 수록했다.

이번에 제정된 표준절차서는 대규모 설비피해 및 정전고장 발생시 신속한 복구대응과 체계적 상황관리를 통한 복구기간 단축은 물론, 경험에 의존해 수행하던 업무를 절차화, 표준화, 체계화함으로써 배전운영분야 업무수준을 한 단계 성숙시키는 획기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전기研, 대전력·고전압 시험기술연수과정 개설

한국전기연구원이 아시아 9개국의 전력회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전력·고전압 시험기술연수과정을 오는 10월 6일부터 2주일간 개설한다.

중전기 제조업체의 해외진출을 돕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해 지난 99년부터 실시한 대전력·고전압 시험기술연수과정은 이론 강의와 산업시찰, 한국문화 소개 등으로 구성된다.

전기연구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전력·고전압 시험기술연수사업을 통해 베트남 기술표준연구원(STAMEQ), 캄보디아 전력회사(EDC), 인도네시아 전력회사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한국의 중전기제품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99년부터 지금까지 연수과정을 수료한 인원은 15개국 총 86명이며, 올해 참가인원은 인도네시아(2명), 방글라데시(2명), 네팔(1명), 몽골(1명) 등 9개국의 15명이다.

한수원, 케이블 500억 규모 발주

한국수력원자력이 7, 8월중에 총 500억원규모의 케이블을 신규 발주한다.

한수원은 신고리원전 1·2호기와 신월성원전 1·2호기 건설에 소요될 각종 케이블을 이번달안에 발주하여 8월까지 입찰을 완료하고 이후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해 올 연말경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입찰은 계장용케이블 전력용케이블 조명용케이블 제어용케이블 통신용케이블 등 품목별로 진행되며 총 발주물량은 약 500억원규모다.

30~40억원 규모의 계장용케이블 입찰은 지난 16일 실시됐다.

이에 따라 전선업체들은 물량수주를 위해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서울전선과 일진전기가 한수원에 입찰참가유자격 업체로 신규등록하고 LG전선 대한전선 진로산업 등 기존 업체들과의 경쟁에 나서 향후 물량수주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번 발주량은 예년에 비해 2배 규모인데다 신규업체도 늘어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입찰가가 예정가를 넘어 유찰돼 낙찰자 선정이 내년으로 미뤄지는 품목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기研, BNC형 커넥터 국내 최초로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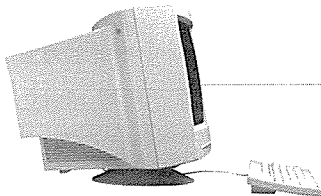
한국전기연구원이 고압충전 가스탱크에서 측정된 신호를 소음 없이 외부로 전송해 주는 '진공 및 고압용 BNC형 커넥터'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BNC형 커넥터는 진공도 10-2 토르(torr)와 최대가스압 15kgf/cm²의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하는 게 특징이다.

특히 이번 BNC형 커넥터 개발로 차단기 내부에서 측정된 신호를 고압 가스탱크 외부로 정확히 전달할 수 있게 돼 차단기가 작동할 때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해졌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정진교 선인연구원은 이와 관련 "우수한 차단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정확히 분석해서 시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하지만 지금까지는 내부에 설치된 센서로부터 측정된 신호를 외부로 전송해 주는 부품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BNC형 커넥터는 센서에서 측정된 신호를 계측기로 전송할 때 센서와 전선, 전선과 계측기를 연결하는 구조가 BNC형인 것을 말하며 가장 일반적인 연결구조다.



전흥회 Homepage 이용안내

<http://www.koema.or.kr>